

日本에서의 15日間

朴 熙 永



◀ 日本國立國會圖書館正門 ▶

15日間 日本을 旅行하는 機會를 가질 수 있었읍니다. 이는 오로지 韓國外國語大學, 韓國圖書館協會 그리고 亞細亞財團의 알뜰한 後援이 있었음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에 이 紙面을 통하여 이들 여러 機關과 關係되시는 諸先生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이번 旅行은 15日間이란 極히 짧은 期間이었읍니다. 게다가 日本은 우리 圖書館界에서도 本人이 旅行하기 以前에 이미 여러분이 旅行하신 곳이어서 紀行文이나 報告文을 쓴다는 일이 甚히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本人 나름으로 經驗한 일, 보고 듣고 한 일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參考가 될까 해서 또 이번 旅行을 可能하게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報告를 해야 하기에 이 紙面을 흐리기로 하였읍니다.

1965년에 白麟(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任鍾淳(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千惠鳳(現: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當時:東國大學校圖書館) 崔昌均(現:學術院 當時:서울市立南山圖書館) 네 분이 함께 다녀 오시어 任鍾淳先生이 「도협월보」 6卷 8號에 詳細하게 日本의 많은 圖書館들을 紹介하였기 때문에 本人이 돌아 본 各圖書館의 詳細한 點은 避하고 다만 個個 圖書館을 찾았을 때 느낀 點 만을 쓰기로 하였읍니다.

1月 24日 (水)

12時 30分 JAL機 便으로 金浦空港을 出發했다. 날씨가 흐려서 구름 위로만 飛行했다. 飛行機 속에서 주는 간지러운 點心을 먹고 나서 窓 밖을 내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구름이 많이 버껴져 있었는데 구름 사이로는 바다 만이 보였다. 暫時後 陸地가 보였는데 日本

인 모양이다. 얼마후 富士山이 보이니 分明히 日本이며 東京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羽田空港에 到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第1案과 第2案을 窮理해 냈다. 2時 15分 日本의 羽田國際空港에 到着했다. 迎送臺에 約 10名이 있었는데 그 중에 日本 옷을 입은 女人이 있어 日本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第1案인 航空社에서 東京에 連絡해 돌 곳이 있으면 連絡해 준다가에 東京에 있는 韓國公報館 Mr. C (外大卒業生)에게 連絡해 달라고 부탁했었기에 空港 迎送臺를 둘러 보았으나 Mr. C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第1案은 拋棄하고 第2案을 施行하기로 했다. 第2案은 日本圖書館協會로 直行하는 것이다. 上野公園內 上野圖書館에 있는 日本圖書館協會를 찾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東京이 처음이어서 어디를 어떻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끌려갔다. 얼마 後 上野驛이 보이고 곧 이어 上野公園 안으로 들어가니 上野圖書館이 나타났다. 택시料금이 1,800圓이란다. 飛行場에서 換金하는 일을 잊었기 때문에 美貨로 5弗을 주었다. 弗當 360圓이란다. 日本圖書館協會 事務室로 들어서자 택시 運轉手가 쫓아 들어와서 150圓을 더 내라고 한다. 高速道路使用料라고 하기에 汎文社 崔喜乘常務에게서 받은 Orientation?이 생각 났다. 1m에 150萬圓 以上을 들여 만들었다는 高速高架道路의 使用料가 150圓이라고 한다.

日本圖書館協會

伊澤 事務局長은 마침 外出中이었기에 菅原 總務部長을 만났다. 日本圖協은 上野圖書館의 附屬建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몹시 오래 된 建物인 것 같았다. 建

물이 주는 印象은 남아 버린 國民學校의 教室을 使用하고 있는 것 같았고 壽命이 얼마 남지 않은 建物인 것 같이 보였다. 木材로 된 複道에서는 걷는 대로 소리가 났다. 그 複道에는 어수선하게 책을 包裝한 小包 봉치가 즐비하게 쌓여 있었는데 日本圖協도 韓國圖協과 같이 큰 圖書館에 寄生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남의 協會보다도 먼저 우리 協會가 會館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후련할까 하고 느꼈다.

菅原 總務部長과 彼我의 圖協의 現況 苦衷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藤田 調査部長兼 圖書選定部長, 野呂 事業部長과 人事를 交換하였다.

慶應大學醫學部圖書館에서 訓練中인 延世大醫大圖書館의 金宗會兄이 本人이 到着하였음을 電話로 連絡 받고 日本圖協事務室로 찾아 와 주었다. 세 사람과 같이 여러가지 意見을 交換한 後 日本圖協이 紹介하여 준 호텔 水月(上野動物園 뒷門 앞)로 金兄과 함께 가서 저녁 食事を 하고 11時까지 金兄이 日本에서의 5個月間 보고 듣고 한 日本各地 圖書館에 대한 이야기 日本圖書館界와 우리 圖書館界를 比較하면서 時間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였다.

1月 25日(木)

日本에서의 첫밤을 자고 나서 호텔 水月을 둘러 보았다. 호텔 正門 옆에 日本의 明治時代 作家인 森歐外가 起居하였던 遺跡이 있었다. 寫眞에서 보았던 그대로 保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러한 것이 保存되었으면 作家研究에 많은 參考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다.

9時까지 日本圖協事務室로 나갔다. 9時 20분이 지나서야 職員들의 出勤이 끝났다. 日本의 出退勤時間의 交通難은 大端하다고 한다. 總務部長과 旅行日程을 議論하였는데 이 날은 東京大學圖書館研究室에서 書誌學을 研究하고 있는 宋在五兄(國立圖書館學校 同期同窓生)이 12時까지 日本圖協으로 오기로 約束되어 있다고 하기에 午前中은 東京外國語大學圖書館을 訪問하기로 하였다.

東京外國語大學圖書館

日本圖協 總務部長으로 하여금 電話로 連絡하도록 하고 東京外國語大學을 찾아 갔다. 上野驛으로 나가 地下鐵을 타고 電車로 갈아 타고 하여 찾아 갔다. 本人이 勤務하고 있는 곳이 外國語大學이고 해서 東京外大圖書館과는 그간 書信往來가 있었던 곳이고 해서 第一 訪問處로 定하여 찾아 가서 보니 韓國外國語大學과 같이 東京外國語大學도 市 中心에서 떨어진 곳에 位置

하고 있었다. 森田 事務部長은 市內 館長會議가 있어 出他中이어서 齋藤 庶務係長을 만났다. 整理係 橋口도 함께 圖書館을 두루 살펴 보았는데 韓國外大圖書館보다는 藏書가 많았지만 歷史로 보아서는 그리 길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外國語를 專門으로 教授하는 大學의 圖書館은 이렇게 되리라고 同感할 수 있었다. 分類表는 獨創의인 特殊한 分類表를 만들어 使用하고 있었고 閱覽目錄은 分類順目錄만이 作成 排列되어 있었다. 獨自의인 分類表에 대하여서는 같은 性質의 大學에 있는 本人으로서 充分히 理解가 되지만 目錄에 대하여서는 理解가 되지 않았다. 分類順目錄은 分類表關係로 語別目錄과도 같았는데 目錄의 記述을 詳細히 들어가 보니 로마字 以外로 著述된 圖書中에서 露語 등 몇 種의 文字를 除外하고는 모두 로마字化하여 있었다. 어떠한 文字로 되어 있더라도 目錄의 記述은 그 圖書의 文字를 그대로 記述하고 排列할 때만 事情에 따라서 排列의 順位를 決定해주는 標記만을 로마字化해야 하는 것이 原則이 아니겠는가 하는 意見과 또 具備해야 할 目錄의 體系에 따르는 目錄種類에 대한 意見을 交換했다. 이 圖書館에서 부러웠던 일은 어느 나라 圖書이던 豫算단 許諾한다면 마음대로 注文하고 購入할 수 있는 點이었다. 그리고 또 이 圖書館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圖書館庶務室에 걸려 있는 黑板에 各科圖書費의 豫算額과 豫算殘額을 白墨으로 記錄하여 놓은 點이 色다르게 보였다. 圖書館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電氣植字機를 보았는데 語學을 主로 教育하는 機關에서의 教材印刷에는 매우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大學에서는 一般事務用紙들도 이 機械로 植字 印刷하여 使用하고 있었다. 機關에 따라서는 1,2年의 印刷費로써 購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마련해 들만한 機械라고 생각되며 이 機械로써 카아드의 複製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었다.

12分까지 日本圖協으로 되돌아 가서 宋在五兄 日本圖協의 事務局長 그리고 總務部長과 함께 點心을 하면서 意見을 交換하였고 끝으로 韓國圖協과의 紐帶問題를 相議하였다.

韓國公報館

宋在五兄의 案内로 東京의 中心部를 돌아 본 다음 宋兄과 헤어져 韓國公報館을 訪問하였다. 韓國公報館이란 東京과 같은 僑胞가 많은 곳 그리고 思想的으로 어수선한 곳에서는 極히 必要한 機關이라고 느꼈다. 僑胞가 세웠다는 New Japan Hotel이란 一流 호텔 안

에 자리 잡고 있었다. 大路에 세워져 있는 案内 아치도 반가웠지만 親한 崔相學兄(外大卒業生)이 勤務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다. 圖書室, 映寫室 등의 施設이 施設하는 것에 끝이지 말고 좀 더 擴張되어 있었으면 하고 아쉽게 느꼈다. 特히 圖書館에 늘 보다 많은 資料를 具備하여 韓國을 紹介하는 일에 끝이지 말고 더 나아가서 東京에서의 韓國研究 센터가 될 수 있는 機關으로 發展되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되었다. 日本의 圖書館界는 하나의 流行과도 같이 알찬 特殊圖書館이 많이 新設되고 있었는데 特殊圖書館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公共圖書館의 奉仕가 萎縮되어 가고 있는 感이 들 程度로 特殊圖書館이 發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客觀的인 條件에 비추어 東京에 있는 韓國公報館이 보다 擴張되기를 바라면서 韓國圖書館의 熱意를 日本의 圖書館界와 日本의 僑胞에게 보여 줄 수 있는 機關이 되었으면 하는 空想을 하였다.

1月 26日 (金)

新幹線이라는 東京 올림픽 때 新造 新設한 甚히 빠른 汽車를 타고 京都로 가서 京都大學圖書館을 訪問하였다.

京都大學圖書館

京都大學圖書館에서 工學博士 宍戶 圖書館長과 岩猿 事務部長을 만났다. 岩猿 事務部長은 公州教育大學의 元鍾麟兄과는 美國에서 한번 만남 일이 있었다고 하며 元兄이 가끔 韓國의 雜誌를 보내 준다고 하면서 最近에 보내 주었다는 「女像」을 내 보여 주면서 그 雜誌 속 에 있는 寫眞을 보면서 韓國을 맛보고 있다고 하며 記事內容은 漢字만 拏라 보아 大綱의 뜻을 짐작하고 있 다면서 雜誌內容과 印刷 등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韓國의 雜誌를 稱讚하여 주었는데 外國에서 母國의 雜誌 한 卷을 놓고 話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出版物 이란 여러 面에서의 媒介物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千惠鳳兄이 이 大學圖書館에서 여러 날 古書 研究를 하였는데 貴重한 資料를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면서도 그 圖書의 價値를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千兄 이야기를 하였는데 혹시 우리 周邊에는 未發掘의 것이 없었나 하고 남의 일 같이 생각 되지 않았다. 庶務, 收書, 그리고 整理의 各分野의 事務를 큰 房에 間도 치지 않고 넉적하게 함께 모여서 事務를 보고 있었는데 事務分野에 따라 房을 따로 따로 使用하는 것도 좋지만 圖書館의 事務가 一連의 事務이고 보면 能率上으로 보아서 房을 따로 使用하는 것 보다는 한 房에 모여서 事務가 處理되는 것도 또한 좋게 보였다. 閱覽事務만을 除外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小倉親雄教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連絡이 되어 小倉教授가 왔다.

東都大學 教育學部에는 日本의 圖書館學者 小倉親雄教授가 圖書館學을 教授하고 있다. 小倉教授는 30年間 圖書館事業에 從事하며 近來에는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있는데 1945年 以前에 Mauris Currant의 韓國書誌의 序文을 翻譯한 일이 있는 분이다. 本人과는 그 동안 가끔 文通이 있었고 25年만에 만나는 사이였다. 徹底한 圖書館學者이었는데 그 間 지낸 이야기로 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圖書館界, 圖書館界人士, 다른 나라 圖書館學者, 亞細亞圖書館聯盟 등등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韓國의 學校圖書館의 이야기를 듣더니 小倉教授가 編纂하고 있는 「圖書館界」라는 圖書館學專門誌가 99號까지 發行되었는데 100號에 韓國의 學校圖書館에 관한 글을 掲載하고 싶다고 하기에 韓國圖協의 金斗弘兄을 紹介하였다. 韓國圖協의 刊行物, 延大의 圖書館學關係刊行物을 願하고 있었다. 京都大學創立 70周年記念으로 建立하였다는 教授會館인 樂雙會館에서 저녁과 麥酒를 함께 하고 나서 늦도록까지 話題가 끝이지 않았다.

1月 27日 (土)

어제 밤에 마침 日本을 訪問하여 天理市에 머무르고 계시는 韓國外大 日語科 朴成媛 教授와 京都驛에서 만나기로 電話로 約束하였기에 京都驛에서 만나 點心을 함께 한 後 來日 (28日) 天理에 함께 가기로 約束하고 觀光 버스로써 京都市를 돌아 보았다. 寺院의 都市였다.

1月 28日 (日)

小倉教授宅으로 招待되어 小倉教授의 家族들과 함께 點心을 한 後 이야기로 여러 時間을 보냈는데 話題는 如前히 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이야기였다.

韓國外大 朴教授와 함께 막차로 天理를 찾았다. 밤이 늦었는데도 不拘하고 天理大學의 石原 外國語學部長이 宿所의 앞선 등 많은 手苦를 아끼지 않아 고맙웠다.

1月 29日 (月)

天理大學圖書館 (天理圖書館)

前에 韓國外大에서 日語를 教授한 바 있는 天理大學 韓國語助教授인 中村氏가 宿所로 찾아와 주어 함께 天理大學 韓國語科研究室로 가서 靑山助教授와 圖書交換

에 관한 意見を 交換하고나서 天理圖書館을 訪問하였다.

富永 圖書館長, 中村庶務를 만나서 圖書交換에 관한 意見を 交換한 後 中村庶務의 案内로 圖書館을 구경하였다. 이 圖書館에는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의 印刷 카아드를 모두 購入 排列하고 있었는데 이 카아드는 그 카아드에 記述印刷되어 있는 圖書가 이 圖書館에 있던 間에 모두 具備하고 있었다. 이는 閱覽者에게 日本出版圖書에 대한 情報를 提供함과 아울러 整理에도 參考가 되는 것으로서 매우 좋다고 생각되었다. 이 圖書館은 日本內에서도 좋고 豫算이 많은 圖書館이라는 評이 있는 圖書館으로서 新設한 書庫 안에 施設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鋼鐵書架가 좋았으며 넓직한 參考室의 많은 辭典, 事典類는 印象的이었다.

世界各國의 民俗品을 蒐集 陳列하여 있는 博物館을 구경하였는데 韓國室에 陳列되어 있는 韓國民俗品은 그 數가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高級 民俗品은 別로 없어 보다 高級이고 보다 韓國을 正確히 理解할 수 있는 民俗品이 陳列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1月 30日 (火)

前에 韓國外大에서 日語를 教授한 바 있는 天理大學 韓國語 教授인 大谷氏가 國際會議에 參席하였다가 어제 歸國하였다면서 宿所로 찾아와 주었다. 함께 大學 本部를 訪問하였는데 이 곳 本部에서 石原 外國語學部長의 案内로 下條 事務局長, 増田 會計課長과 人事를 交換한 後 大谷氏 그리고 朴成媛教授와 함께 天理를 出發 奈良로 가서 헤어져 朴教授와 함께 東京으로 되 돌아 왔다.

1月 31日 (水)

東京大學綜合圖書館

東京大學綜合圖書館의 守田 總務課長과 만난 후 參考係의 小笠原 司書의 案内로 圖書館의 內部를 구경하였다. 이 圖書館에서 마칩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講習會가 開催中이었다. 도큐멘테이션 講習會는 다른 地方에서도 開催되고 있었다. 講習會의 教材代를 받고 있었기에 教材를 사서 後에 韓國圖協에 寄贈했다. 이 圖書館의 研究室에는 두 사람의 韓國人이 研究中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前述한 宋在五兄이었다. 主題別 開架式으로 轉換하고 있는 이 圖書館에는 參考室이 퍼 넓었는데 參考室 2層 圖書館學에 관한 部門을 보니 圖書館學에 관한 圖書와 逐刊書가 한 곳에 開架되어 있어 좋았는데 韓國圖協의 「도협월보」가 있기는 하나 缺號가 많기에 缺號를 補充하여 完帙을 備置하여 주도록 請하였다.

東京大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圖書館用品商 「伊藤伊」가 있어 이 곳을 찾았다.

「伊藤伊」

日本の 圖書館用品商의 開拓者는 間宮不二雄氏이지만 지금은 隱退하고 있다. 現在 盛業中인 商社가 몇 會社 있는데 그 中에서도 「伊藤伊」「木原正三堂」 등이 이름이 있다.

圖書館用品商 「伊藤伊」는 第一代 伊藤伊太郎가 創業하여 現在 第二代 伊藤伊太郎가 繼承하고 있는 60年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는 會社이다. 韓國에서의 圖書館用品의 發展을 위한 資料를 얻느라고 얻었고 各種 作業工場도 視察하였다. 카아드 製造面만 보더라도 카아드 裁斷機가 몹시 能率的이어서 全紙 一枚一枚를 우선 橫으로 裁斷한 後 橫으로 裁斷된 길다란 카아드紙를 다시 從으로 一枚一枚 裁斷하여 同時에 5枚式 裁斷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카아드 裁斷機는 橫으로 裁斷하는 機械와 從으로 裁斷하는 두 機械가 있다. 裁斷되는 모습은 마치 自動印刷機가 印刷하는 速度와 비슷한 速度로 카아드가 裁斷되고 있었는데 아무리 많이 裁斷되더라도 12.5cm×7.5cm에는 조금도 差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 機械는 100枚씩을 묶어서 한 번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이 機械들은 現社長 伊藤伊太郎氏가 發明한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구멍 뚫는 機械는 機械의 內部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게 가려 놓고 있었는데 如何한 사람에게도 이 機械의 內部만은 보여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機械로 하루의 카아드 製造量은 20萬枚라고 하며 이렇게 生産해도 需要量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카아드는 이 會社에서만 生産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니 日本の 카아드 消費量으로 日本の 圖書館界를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였다. 카아드函도 많이 改良되었는데 카아드函의 로드 의 머리가 거치적거리지 않게 움푹 들어가 있었고 材木과 그리고 철이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것 보다 좋아 보였다. 「伊藤伊」의 專務인 伊藤明氏가 別途로 「アイ商株式會社」를 가지고 있었는데 アイ商에서는 「Togic」이라는 簡易製本器를 發明하여 이를 販賣하고 있었다. 이 「Togic」이라는 機械는 美國으로도 많이 輸出되고 있어 美國에다가도 特許를 申請中에 있는 機械이다. 製本器라기 보다 製綴器라고 할지 여러 冊의 雜誌나 또는 書類, 傳票 같은 것을 구멍을 뚫고 비닐못을 꿰어 綴하는 機械인데 참으로 재미 있는 發明品이었다. 이 「Togic」은 圖書館뿐만 아니라 官公署, 銀行, 會社 등에서도 必要할 것으로 생각되는 機械이기에 旅費를 節約하여 한 臺 샀다. 「伊藤伊」에서는 테이프 製本이라는 테이프 製本하는 簡易製本을 하는데 必要한 여러

가지를 販賣하고 있었으므로 테이프 등 簡易 테이프 製 本품을 일습 寄贈 받았다. 그리고 「伊藤伊」는 本製本에 必要한 製本材料를 製造하여 販賣하고 있었는데 매우 質이 좋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簡易製本을 위한 材料 또는 一般製本材料의 製造가 至急히 要望되었다.

2月 1日 (金)

國立國會圖書館

伊藤社長の 紹介로 國立國會圖書館 松崎 管理課長을 訪問하였다. 松崎課長은 10餘年前 日本에서의 會議에 參席하였던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 李鳳順先生과 함께 積은 寫眞을 내 보이면서 李鳳順先生과 그리고 金元奎先生 (京畿工業高等學校長)의 安否를 물으면서 여러 時間을 親切하게 案内해 주었다. 施設이나 設備面을 보면 書庫 속은 炭酸가스消火設備가 되어 있어 萬一의 경우에 對備하여 書庫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 가를 알 수 있도록 書庫에 들어갈 때에는 書庫入口에서 記名해야 하고 腕章을 받아 차야 한다. 貨出臺와 書庫는 圖書請求票送達用氣送管 圖書運搬用 垂直 컨베이어 裝置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現在 乙支路一街 三星빌딩 正門에 裝置되어 있는 自動開閉門의 原理를 利用하여 書架 사이에 사람이 들어서면 電燈이 켜져 圖書를 찾아 내기에 便하게 하고 書架 사이에서 사람이 도로 나오면 電燈이 꺼지는 裝置는 現在 試驗中에 있었는데 電燈의 電球가 螢光燈이라서 들어서자마자 電氣가 速하게 꺼지지 않는 것이 흠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裝置를 하기에는 螢光燈 以外 電球을 使用해야 하겠다고 느꼈다. 如何間에 書庫內部 書架와 書架 사이의 電氣問題는 電氣를 節約하는 點으로 보아서도 書庫 照明은 研究되어야 하겠다. 圖書館이 大圖書館이어서 製本室도 大規模이고 施設도 좋았다. 特히 破損된 西書의 古書를 細密한 表紙의 原本도 原本 그대로의 모습으로 復元하게 하기 위한 彫刻을 새로이 하여 表紙를 만들어 製本하는 등 製本에 많은 功과 財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皮表紙도 그대로 復元해 놓고 있었는데 貴重本의 製本은 精誠이 大端하였다. 新書의 製本을 위하여서는 特別히 注文하여 製造한 크로스를 使用하고 있었는데 特別히 注文하여 製造한 이 크로스는 質이 좋은 것이었다.

高麗書林

金宗會兄의 紹介로 東京에 있는 韓國圖書를 販賣하고 있는 高麗書林으로 朴光洙社長을 訪問하였다. 店舖가 작은 것, 販賣하고 있는 圖書가 적은 것은 고사하고 陳列되어 있는 圖書의 質이 그리 좋지 못하다. 日本의 需要자들이 要求하고 있는 圖書가 이러한 圖書만

인지는 몰라도 外國에서 開催되는 圖書展示會에는 훌륭한 圖書를 展示하여 韓國의 出版文化를 자랑하고 있는 일과 比하여 본다면 이 書店에 있는 圖書는 많은 距離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日本에서 韓國圖書가 必要한 사람들이 이 書店에 있는 圖書만으로 韓國의 出版 乃至는 韓國의 文化를 評하게 된다면 甚히 困難한 일이라고 하겠다. 日本에 대한 韓國出版文化의 紹介라든가 日本에 居住하는 僑胞들에 대한 點 등 여러 客觀的인 條件을 생각할 때 東京에다 훌륭한 韓國書店이 있었으면 하고 느껴졌다.

韓國圖書의 販賣價格을 알아보니 韓國定價의 3倍 乃至 4倍를 받는다고 한다. 天理大學에서는 個人에게서 2倍로 사고 있다고 하는 것과 比하여 보면 販賣하고 있는 競爭者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換率로 보아 몹시 高價인 것으로 여겨졌다. 參考로 日本의 貨幣와 韓國의 貨幣를 美弗로 본다면 日本에서는 弗當 360圓이고 韓國에서는 275원이다. 그러니까 275 : 360이 되며 日本 돈 100圓이 韓國돈 76원이 된다. 韓國에서의 日本圖書는 1 : 1.3으로 書店에서 販賣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圓의 日本圖書는 우리 돈 130원이 된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書籍商 丸善을 찾았다. 第1館, 第2館, 第3館 이렇게 큰 建物이 있었는데 생각 보다 훨씬 規模가 컸다. 汎文社 崔常務의 紹介로 福井 輸出部書籍課長을 만났다. 決算을 보는 날이어서 賣店은 休業하고 있었기에 來日로 約束하고 헤어졌다.

2月 2日 (金)

東京出版販賣株式會社

東南圖書의 林常務의 紹介로 東京出版販賣株式會社 (東販)의 金子書籍販賣部海外課長을 만났다. 福村課員의 案内로 書庫에 가서 必要한 圖書를 選擇하였다. 日本의 都賣店은 個人이나 圖書館에는 都賣價로 販賣하지 않고 오직 書店에게만 都賣價로 販賣하고 있었다. 書庫에는 圖書를 出版所別로 陳列하여 있었는데 마치 서울 驛 뒤에 있는 靑果市場이나 生鮮都賣市場과 같이 넓었고 各 書店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辭典類는 別途로 陳列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出版所別로 되어 있었다.

神田의 古書店

東販에서 나와 神田의 古書店에 들렀다. 神田에는 옛 부터 冊肆가 많은 것으로 이름 나 있다. 그래서 神田의 古書店을 이 집 저 집 들렀다. 그 중에서도 오랜 歷史를 지닌 一誠堂에 들어가 보니 一層建物인데 一層에는 日本圖書가 있었고 二層에는 西書가 있었다. 酒

井社長과 만나 談論한 後 所要되는 圖書를 選擇하였다. 神田의 古書店에는 몇 店舖를 除外하고는 古書店이라고는 하지만 1945年 以前 出版圖書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三省堂 등 新刊圖書를 販賣하고 있는 書店에는 語學 레코오드를 常時 돌리고 있었는데 한쪽 편 語學圖書를 陳列하여 놓은 近處에 裝置되어 있었다. 어느 書店이고 圖書를 사기 위한 讀書인들이 붐비고 있었다. 그래서 韓國에서와 같이 書店에서 圖書를 選擇하기에는 좀 힘이 들었다. 電車, 地下鐵, 汽車 등 무엇을 타든 車中에서 讀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몹시 눈에 띄었다. 確實히 讀書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讀書인이 많으면 出版事業이 따라서 繁昌할 것이지만 그보다도 文化가 向上되고 知識水準이 向上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나라는 너무나 讀書를 하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近來 各國의 圖書出版部數에 있어서 美國이 世界 第1位라고 하지만 美國이 第1位가 되기 얼마 前까지는 日本이 第1位였다. 出版部數가 많아서 讀書人口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讀書人口가 많아서 出版部數가 많은 것인지는 몰라도 讀書人口가 많다는 것은 圖書館人으로서 甚히 부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丸善株式會社

어제 約束한대로 丸善의 書店을 들렀다. 圖書를 販賣하는 建物은 몹시 큰 建物이었다. 一層은 洋品部였고 二層은 日本國內出版圖書를 販賣하는 곳인데 二層 한쪽 편에 圖書館用品을 販賣하고 있었다. 三層이 西書를 販賣하는 곳이기에 三層에서 所要되는 西書를 選擇하였다. 이 곳에서는 西書를 弗當 400圓에 販賣하고 있었는데 弗當 正式換算率이 弗當 360圓이다. 이것은 弗當 275當圓을 350圓에 販賣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比하여 보면 많은 差異가 있다. 돌아와서 알아보니 弗當 380圓이 되어 있었다.

	弗	公式換算	販賣
韓國	弗1.00	275圓	380圓
日本	弗1.00	360圓	400圓

그러니까 275 : 380과 360 : 400이 된다. 相當한 差가 있는데 日本과 比하여 볼 때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外國文化 外國의 學術을 導入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도 돈을 더 들여야만 하나 하고 쓰라리게 느꼈으며 더욱이 必要한 外書를 適期에 들여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國家發展에 至大한 支障을 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2月 3日 (土)

東販에서 뒷일을 다 마치고 東販食堂에서 晝食을 했다.

어제 만나서 夫君과 晝食을 함께 한 바 있었던 R女子大學校에서 圖書館學을 배운 Mrs 張宅에서 Mr 張 Mrs 張 그리고 애기와 함께 저녁을 하였다. 상치를 구해다 고추장으로 상치삼을 먹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알뜰한 追憶의 하나로 오래 간직하려고 한다.

東京에는 中國料理보다 韓國料理가 몹시 流行하고 있어 여러 곳에 큰 韓國料理店이 있었다. 東京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먹어본 韓國料理店의 이름을 보면 一龍, 鳳亭, 銀座苑, 白頭山 등이 있었고 그리고 「파고다」라는 이름의 茶房도 있었다.

2月 4日 (日)

日曜日이었기에 東京市內 구경을 하고 아울러 飛行機座席 豫約을 할겸 金宗會兄과 만나서 百貨店도 돌아 보았다. 저녁에는 「伊藤伊」의 伊藤社長과 「アイ商」의 伊藤社長과 저녁을 함께 하고 淺草의 밤거리를 거닐었다.

우리 나라와 弗當의 換率로 보면 物價가 몹시 비싸나 個人의 所得으로 보면 그리 비싸지 않다고 느꼈다.

2月 5日 (月)

慶應大學醫學部圖書館

慶應大學은 日本에서도 오래 된 私學의 大學이고 또 圖書館學科도 있는 大學이다. 慶應大學의 醫學部圖書館은 延世大學校醫科大學圖書館과 같이 本大學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 圖書館은 醫學에 관한 世界各國의 刊行物이 대단히 많은 種類가 들어 오고 있었고 그 收書되는 定刊書가 最大限으로 利用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모든 準備가 갖추어져 있었다. 裝備와 人員도 充分하였지만 特殊圖書館, 學術圖書館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圖書館이라고 느꼈다. 이 곳에서 6個月間 訓練을 하고 歸國한 金宗會兄의 報告가 있을 것이므로 慶應大學醫學部圖書館에 관하여서는 그 글을 參考하기 바란다.

2月 6日 (火)

觀光 버스로써 東京을 一周하였다. 어느 곳이고 到着하자 마자 觀光 버스를 타고 觀光하는 것 보다 여러 날 돌아다닌 後에 觀光 버스를 利用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다.

2月 7日 (水)

Mrs 張이 아침 7時半에 自己 自動車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便하게 羽田까지 갈 수 있었다. 9時 20分 出發의 JAL機便으로 11時40分 金浦에 내렸는데 飛行機 속에서 同窓 宋在五兄과 함께 歸國하게 되어 심심치 않게 돌아 올 수 있었다.